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Readers are Leaders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가 지난 7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허 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손영신 한국신문협회 부회장(부산일보 발행인), 김여송 한국신문협회 부회장(광주일보 발행인),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고문(문화일보 명예회장), 장동혁 국민의 힘 당대표,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장희 한국신문협회 회장(중앙일보 발행인), 우원식 국회의장, 이태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호 한국신문협회 전 회장(조선일보 발행인), 임채청 한국신문협회 전 회장(동아일보 발행인),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이성철 한국신문협회 부회장(한국일보 발행인), 장승준 한국신문협회 부회장(매일경제 발행인), 정성은 한국언론학회 회장, 최문선 한국여성기자협회 회장.

李 대통령 “신문이 정론직필 정신 지켜가도록 함께 고민할 것”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가 지난 7일 공동 주최한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로는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해 온 ‘신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1960년 김주열 열사의 사건을 다룬 신문 보도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한 신문 보도는 ‘6·10 민주항쟁’과 대한민국 대통령 직선제 도입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

박장희 회장 “가짜와 극단의 득세 돌파할 저력은 신문”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던 ‘신문 보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신문인’ 여러분께서 정론직필의 정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또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공적담론을 형성해 온 신문의 역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이 바로 설 때 우리 민주주의 또한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며 “국회는 신문이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과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장희 신문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진실의 기준은 더 필요하다”며 “가짜와 극단의 득세를 돌파할 저력은 신문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훈련된 기자가 발로 뛰고 엄격한 사실 확인을 거친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세월과는 완전히 다른 AI의 시대가 왔다지만, AI의 토대는 학습이고, 학습의 본질은 정제된 세력의 축적

물”이라며 “독창적 언론의 위상과 정제된 저작물의 값어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하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을 비롯해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연에 앞서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린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는 회원사 발행인 및 임직원, 수상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신문상·신문협회상 및 신문의 날 표어·캐릭터 수상자 시상식이

있었다.

기념대회에서 박장희 회장은 대회를 통해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식간에 답을 내놓고, 각종 플랫폼에서는 편향된 주장이 알고리즘을 타고 정답처럼 퍼져나간다”며 “지금은 ‘답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계는 스스로 의문을 품지 못하고 시대적 가치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며 “좋은 질문을 던지고 공론장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문의 책무이자 권리”라고 역설했다.

- 2면 제70회 신문의 날 화보
- 3면 기념축하연 환영사/축사, 기념대회 대회사/개회사/독자여러분께 드리는 글
- 4면 신문협회상 수상자 공적

“신문은 시대의 증거... ‘기록 저널리즘’ 가치 회복해야”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3단체는 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문의 날 70회: 역사의 기록, 미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신문 저널리즘이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

기조강연을 맡은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신문의 70년, 그리고 미래 100년’을

언론3단체 주최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발표자들. 왼쪽부터 오석기 강원일보 편집국 부국장, 유영훈 매경AX AI데이터부 부장, 김정근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실장,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배정근 한국신문협회 신문발전연구소 소장,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김주성 한국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부 부장, 강희 경인일보 논설위원.

시기별 한국 신문의 역할 변화					
산업화(1945~1979)		민주화(1980~1999)		정보화(1990~현재)	
해방 한국전쟁	군사정권 고도 경제성장	언론 통제합	민주화 IMF	인터넷 혁명 포털 부상	AI·알고리즘의 발전
·민족 공론장 형성 ·재건 담론 주도	·발전 저널리즘 ·유신 체제 협력과 자유언론 저항 공존	·보도 통제에 저항 ·민주화 기폭제	·제4부 위상 강화 ·탐사보도 확대	·지식정보사회기틀 마련 ·온라인 경쟁 본격화	·디지털 퍼스트 팩트체크 ·신뢰 재구축

주제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AI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문의 역할 변화(표)를 조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신문이 가진 ‘기록 저널리즘(Documentary Journalism)’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 당시 발행된 신문 호외가 팬들 사이에서 소장 가치 있는 ‘굿즈’로 인기를 끌었던 현상을 언급하며, “디지털 스트리밍은 순간을 전달하지만, 신문은 특정 순간이 역사적으로 중요함을 선언하는 ‘물리적 증거’”라고 말했다.

신문의 날 기념대회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신문들의 날 기념대회 주요 참석자들



신문의 날 기념대회를 공동주최한 언론3단체장. 왼쪽부터 이태규 편집인협회장, 박장희 신문협회장, 박종현 기자협회장이 각각 개회사, 대회사,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변재운 한국신문상 심사위원장이 심사평을 낭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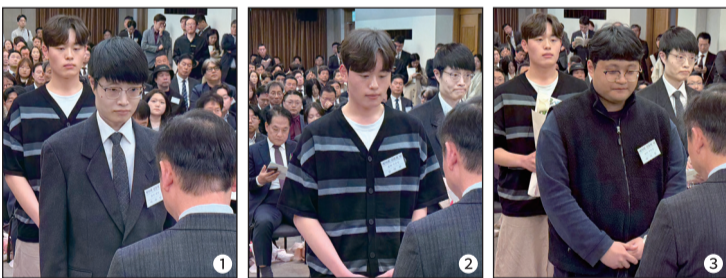
한국신문상 수상자들. 왼쪽 위부터 뉴스취재보도 부문(1)조선일보, (2)경인일보, 기획·탐사보도 부문(3)한국경제, (4)전북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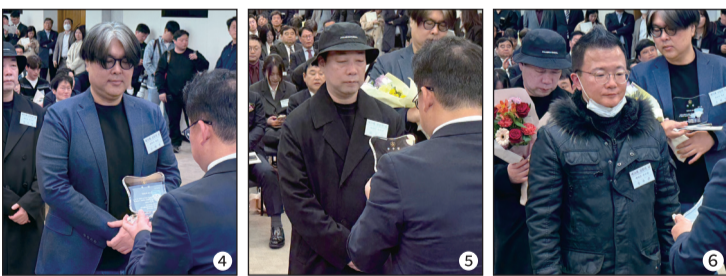
한국신문상 수상자들. 왼쪽 위부터 뉴스취재보도 부문(1)조선일보, (2)경인일보, 기획·탐사보도 부문(3)한국경제, (4)전북일보



2026 한국신문상 상패 및 신문협회상 상패



신문의 날 표어 및 신문홍보 캐릭터 수상자들. 왼쪽 위부터 >신문의 날 표어 [대상] 1 이수빈(경남 김해시) [우수상] 2 김민준(인천) 3 태지훈(전북 완주군) >신문홍보 캐릭터 [대상] 4 김혜정(경남 양산시, 대리수상) [우수상] 5 최우영(서울 강북구) 6 정우준(서울 은평구)



신문의 날 표어 및 신문홍보 캐릭터 수상자들. 왼쪽 위부터 >신문의 날 표어 [대상] 1 이수빈(경남 김해시) [우수상] 2 김민준(인천) 3 태지훈(전북 완주군) >신문홍보 캐릭터 [대상] 4 김혜정(경남 양산시, 대리수상) [우수상] 5 최우영(서울 강북구) 6 정우준(서울 은평구)



신문협회상 수상자들이 꽃과 상패를 받고 있다.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축하연 주요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에 앞서 환담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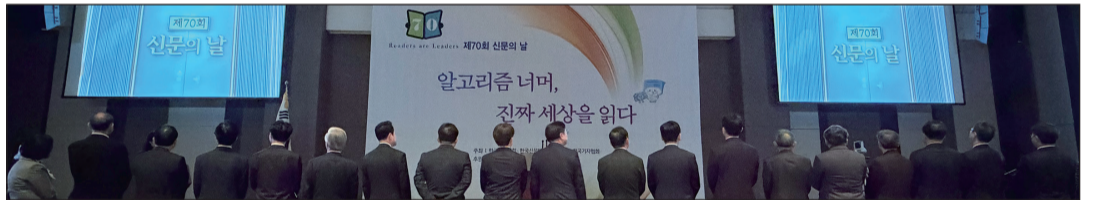


박장희 신문협회장이 신문들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축사를 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신문들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주요 참석자들이 '제70회 신문들의 날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축하 떡을 자른 후 떡을 나눠주는 우원식 국회의장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 주요 참석자(가나다 순)

정관계 강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현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학계 정성은 한국언론학회 회장,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언론유관단체 권남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사무총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노현숙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언론지원국장, 박상욱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 안병준 한국기자협회 고문, 양승혜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기획실장, 우재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사무국장, 유기정 한국조식기자협회 회장, 이강덕 관훈클럽정신영양기금 이사장, 이규연 한국기자협회 고문, 이상기 한국기자협회 고문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이상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원장, 이종세 대한언론인회 회장, 이하원 관훈클럽 총무,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최문선 한국여성기자협회 회장, 함준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감사,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황태호 관훈클럽 사무국장

언론계 강경희 조선일보 편집국장, 권태호 한겨레 전무이사, 김병수 신문발행인포럼 회원, 문진현 내일신문 사장, 박희준 세계일보 편집인, 방준오 조선일보 사장, 변재운 국민일보 전 발행인, 손용석 한국일보 상무, 손헌덕 매일경제 주필, 유병욱 강원일보 서울본부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이도성 경남신문 서울지사장, 이병규 문화일보 명예회장, 이성진 경북일보 서울지사장, 이종규 전북도민일보 서울본부장, 이지효 중부매일 편집국장, 임 환 전라일보 사장, 임태대 경향신문 전략경영본부장, 정규

성 경기일보 서울본사 사장
현직 발행인 광영길 아주경제 발행인, 김경호 국민일보 발행인, 김병직 문화일보 발행인, 김상혁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여송 광주일보 발행인, 김원식 중도일보 발행인, 박종성 경향신문 발행인, 박진범 내일신문 발행인, 박진오 강원일보 발행인, 박진형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현수 인천일보 발행인, 서창훈 전북일보 발행인, 손동영 서울경제 발행인, 손영신 부산일보 발행인, 신효균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이기식 세계일보 발행인, 이성철 한국일보 발행인, 이순국 경기일보 발행인, 이후혁 대구일보 발행인, 임채정 동아일보 발행인, 장법식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승준 매일경제 발행인, 한국선 경북일보 발행인, 한인형 중부매일신문 발행인, 홍경선 충청투데이 발행인, 홍정표 경인일보 발행인,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기타 김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유진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팀장, 장소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국장,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환영사·축사 요지



환영사 박장희 한국신문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신문협회 회장 박장희입니다. 우선 제70회 신문의 날을 맞아 영상 축하 말씀을 전해 주실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님과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문은 재래식이라는 비아냥을 간혹 듣습니다. 낙후되었고 교체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억압이 묻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변하면 신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구태의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에는 꺼림직한 구석이 있습니다. 공정 대신 편파, 공론 대신 선동을 새 기준으로 받아들이자는 위험한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신문 구독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론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진실의 기준은 더 필요합니다. 가짜와 극단의 득세를 돌파할 저력은 신문에서 나옵니다. 훈련된 기자가 발로 뛰고 엄격한 사실 확인을 거친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4월 7일은 130년 전인 1896년 독립신문이 창간된 날이며, 1957년부터 신문의 날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걸음으로 오랜 세월 땀 흘리며 쌓아 올린 지난 70년이었습니다.

이 세월의 가치와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과는 완전히 다른 AI 시대가 왔지만 AI 시대는 학습이고 학습의 본질은 정제된 세월의 축적물입니다. 역설적으로 AI로 인해 아니면 말고 식의 유행이 언론이나 베끼기 언론의 설 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독창적 언론의 위상과 정제된 저작물의 값어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언론의 진심과 본질은 향후 70년 동안에도 재래식이 아닌 클래식으로서 시대의 영원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축사 이재명 대통령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로는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해 온 '신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60년 김주열 열사의 사건을 다룬 신문 보도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한 신문 보도는 '6·10 민주항쟁'과 대한민국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의 계기가 됐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민주·자유언론의 실천 의지를 이어와 주신 '신문인'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존경하는 '신문인' 여러분,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선진 모범 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뉴스이용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인공지능의 발달과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인해서 언론환경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문 저

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신문 보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신문인' 여러분께서 정론직필의 정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또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70회 신문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문의 더 큰 발전과 '신문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돌이켜 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신문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은 민주화 운동의 주요한 축이었습니다. 권력을 고발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신문 보도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공적 담론을 형성해 온 신

문의 역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언론과 국회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온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문 산업은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서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결과 혐오,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되고, 사실보다는 감정을, 진실보다 편견을 부추기는 알고

리즘은 극단적인 갈등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치역시 시대일수록 믿을 수 있는 정보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신문이 바로 설 때 우리 민주주의 또한 더욱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신문이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대회사·개회사·독자여러분께 드리는 글 요지

대회사 박장희 한국신문협회 회장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첫발을 내디딘 지 130년, 그리고 '신문의 날'을 제정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신문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의 속도와 진폭은 과거의 경험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체계와 관성이 해체되면서, 예측은 빗나가고 분석은 무력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불확실성은 커졌는데, 답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식간에 답을 내놓고, 각종 플랫폼에선 편향 가득한 주장이 알고리즘을 타고 정답처럼 퍼져나갑니다. '답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계는 스스로 의문을 품지 못합니다. 시대적 가치를,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질문은 여전히 경험과 직관의 몫입니다. 그리고 신문의 책무이자 권리입니다. 좋은 질문만이 해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답과 답이 만나는 공론장이 새로

운 질문을, 새로운 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맥락을 쫓고, 유연하게 새 관점을 받아들이는 신문만이 '답의 시대'를 '질문의 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문인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문명이 바뀌어도 미디어의 역할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팩트와 균형 잡힌 시선을 바탕으로 한 고품격의 저널리즘은 종착지가 없는 여정입니다. 어제 아무리 좋은 보도를 해도 오늘 기사를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 업의 숙명입니다. 형태적으로도 종이라는 물성과 텍스트라는 형식에 갇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독자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 익숙한 분석 틀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신문의 날 표어는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입니다. 알고리즘의 계산이 닿지 못하는 진실의 심연을 파헤치고, 통합과 공론의 장을 만드는 신문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낡은 정답을 반복하기보다 낯선 질문을 환영합시다.

다시 한번 신문의 날 70주년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개회사 이태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여러분, 햇수로 70은 굉장히 큰 숫자로, 다양하고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 우리 신문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단한 여정을 함께하며 사회공기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무게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신문의 날은 한편으로 언론의 위기와 자성이 교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위기 산업이란 자각과, 신뢰의 추락이란 자기반성 속에서도 여전히 권

력 감시와 미래 방향 제시, 공론장 제공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한 가운데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붙잡을지 몰라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도, 검증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문, 언론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속도보다 정확성을, 자극보다 신뢰를, 유행보다 책임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신문의 존재 이유이며 저널리즘의 본령일 것입니다.

올해 신문의 날 표어 대상은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입니다.

진짜 세상을 읽어내는 힘은 신문, 언론에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는 기자 눈에, 사실을 끝까지 따지는 편집의 기준에,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언론의 책임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문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너머의 세상을 읽어내는 신문, 사실의 힘으로 사회를 세우는 신문, 기술 시대에도 책임과 품격을 잃지 않는 신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신문산업의 발전과 모든 언론인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

언론은 역사의 방향을 묻고 그 순간을 기록해 왔습니다. 한국 언론은 어두운 시기에도 침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권력 감시에 나섰으며, 거리의 작은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 왔습니다. 그 길 위에는 선배 언론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은 현장의 기자들에

게 이어졌습니다. 전쟁과 갈등,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시대 속에서 언론인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은 정보를 빠르게 전하지만, 진실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묻고, 더 확인하고, 더 책임 있게 기록해야 합니다. 언론을 향한 독자와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단단한 기준으로 다듬겠습니다.

저희는 독자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현장에 더 오래 머물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 사건이 시작되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속도보다 본질을, 속도보다 정확을 선택하겠습니다. 언론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70년 시간은 자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신뢰가 언론을 살립니다. 저희는 그 신뢰에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낯은 곳에서 가까이 다가가 진실을 기록하겠습니다.

전략적 AI 활용·수익 다각화·콘텐츠 다변화

2026년 신문협회상 수상자 공적내용

신문협회는 제70회 신문의 날을 맞아 회원사 우수사원 54명을 선정하고, 지난 7일 신문의 날에 신문협회상을 시상했다. 디지털 혁신과 경영개선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내용을 소개한다.(지면 사정으로 수상자 총 54명 중 18명의 공적내용만 소개).



박지연 국민일보사 종교국 종교기획부 차장은 더미션 섹션의 광고 관리, 공정 모니터링, 광고 데스크 점검, 각종 보고서 작성 등 핵심 실무 전반을 책임지며 종교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사내외 주요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현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송재용 동아일보사 경영지원국 PF관리팀 총정로안전관리파트 파트장은 총정로사육 등 전국 10개 사육 노후 설비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역량과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며, 신문 제작의 연속성과 업무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전용배 브릿지경제신문사 광고국 국장은 33년간 광고 업무에 종사해 오며,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공적인 브릿지경제 론칭에 앞장섰으며, AI시대에 걸맞은 신규 광고주들을 유치했다. 또한 IR클럽, 화보 판매 등 다양한 출입처에서 수익모델을 개발했다.



나경은 서울신문사 ESG위원회 차장은 시설·임대·광고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회사 매출 관리에 기여해 왔다. 2025년 서울미래컨퍼런스에서 최초로 다중 세션 구조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행사의 규모와 완성도를 높이며 대형 포럼의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서광태 세계일보사 독자서비스국 국장은 지국 및 독자 관리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국 활성화와 기업 독자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신문 유통 체계 개선을 통해 지국 운영 안정성을 높였으며, 지국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김철민 아주경제신문사 디지털전략실 디지털개발팀 과장은 AI 기반 뉴스 패키지 제작 및 유튜브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콘텐츠 유통 플랫폼 다양화에 기여했다. 또한 AI 기능이 도입된 CMS 개편시 기사작성 및 신문제작 환경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했다.



차지연 연합뉴스 기획조정실 미디어전략팀 차장은 대내외 홍보·협력, 미디어 전략 기획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기자의 관점에서 뉴스통신사의 AI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취재 현장 AI 도구 도입을 제안해 회사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용필 조선일보사 총무국 자산팀 차장대우는 연말정산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효율을 증진시켰으며, 신문인쇄 공정에서 CTP시스템 도입을 담당하면서 신문제작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사내 공유업무공간(조이)을 기획·창출함으로써 업무환경을 개선했다.



박지훈 한겨레신문사 경영관리본부 통합관리센터 관리2팀 팀장은 경영기획실, 광고국, 독자서비스국 등 다양한 부서 경험을 통해 쌓은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모든 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했다. 국실간의 협업과 소통에 능숙해 업무 효율 향상에도 기여했다.



문혜정 한국경제신문사 경제연구소 주니어 생글생글팀 부장은 어린이·청소년 경제 전문 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을 창간해 자라나는 세대의 '경제 지능'을 키우는 데 힘썼다. 특히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 매커니즘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이끌었다.



최고은 한국일보사 경영지원실 인사팀 차장은 인사제도와 시스템, 보상 영역을 총괄하며 인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급여 및 보상 프로세스를 정교화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이를 통해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김형규 강원도민일보사 경영실 총무국 국장은 경리 및 회계업무를 수행해 회사 법인의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완수했다. 아울러 정산 관리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사 신청 업무를 총괄해 회사가 우선지원사로 21년 연속 선정되는데 이바지했다.



정자연 경기일보사 편집국 문화체육부 부장은 '잃어버린 무명의병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일 본과 맞서 싸웠던 무명의병을 조명하며 새로운 역사적 가치를 공론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 자원을 찾아내 보도했다. 사내에선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김락현 경북매일신문사대구본부본부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언론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했으며, 영업 활동과 신규사업 유치를 통해 신문사 경영개선과 수익 기반 확대에 성과를 거뒀다. 또 조직 관리에 힘쓰고 본사와 본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직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임동석 광주일보사 기획관리국 팀장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한 공익 기획을 발굴·추진했다. 특히 지역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캠페인과 기획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성 강화에 기여했다.



신수철 영남일보사 광고사업국 문화사업부 부국장은 심포지엄, 공연, 축제,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이 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이슈를 환기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수익 다각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했다.



황성조 전라일보사 편집국 정치부 부장은 지면 12면 체제 전환, 전북 언론사 최초로 4일제 도입(2026년 1월 29일) 등 경영 혁신에 일조했다. 아울러 '도시는 짓는데, 사람이 없다' 기획으로 2025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지역신문 기획취재 지원작에 선정됐다.



원영미 중도일보사 편집국 편집부 부장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쌓아온 편집 역량을 인정받아 편집상을 다수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목요일론인클럽 '이달의 편집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뒀으며, 편집과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편집부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신문의 날에 저널리즘 가치 알리다

제70회 신문의 날 맞아 '신문 홍보 캠페인' 전개

신문협회는 제70회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신문홍보 캠페인(사진)을 전개했다.

먼저 협회는 신문홍보 동영상 제작, 지난 7일 열린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선보였다.

4분 30초 분량의 홍보 동영상은 독립신문 창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문의 변천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신문의 역할을 담았다.

홍보 동영상은 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문의날 홍보 동영상 화면>



<신문의날 홍보 광고>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신문홍보 광고 캠페인도 실시했다. 회원사는 신문주간인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신문홍보 광고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5단통 및 9단21)를 지면에 일제히 게재해 신문홍보에 동참했다.

이 광고는 "알고리즘이 걸러낸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만나는 방법, 바로 신문입니다", "올타리안의 정보만이 아닌 살아 있는 현실을 마주하는 힘! 신문을 읽는 것은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본질을 만나는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美뉴스미디어연합, AI기업과 집단 라이선스 체결

뉴스미디어연합(News/Media Alliance, NMA)은 지난 3월 23일, 언론사 콘텐츠가 AI 시스템 내에서 활용될 때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브리아(Bria)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브리아 AI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시각적 생성 AI(Visual Generative AI)' 전문 기업으로, AI 답변에 활용된 콘텐츠의 기여도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뉴스 콘텐츠 정당한 보상 계기 마련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사용량 기반 수익 공유 시스템'이다. 구체적인 보상 체계를 살펴보면, 언론사는 브리아의 기업 고객들이 자사 콘텐츠를 인용하거나 활용하는 빈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가를 산정받게 된다. 발생한 수익은 브리아와 언론사가 5대5 비율로 균등하게 배분해 공정성을 높인다. 베레드 호레쉬(Vered Horesh)

브리아 최고 AI 전략 책임자는 "현재 기업 AI팀부터 법률,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레로, 금융 서비스 코퍼레이트는 시장 정보 요약 시 라이선스를 확보한 전문 뉴스 콘텐츠를 인용하고, 법률 AI 챗봇은 최신 규제 변화에 대한 뉴스 보도를 근거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

고 있다. '집단 라이선스 계약' 방식으로 효율성 향상 이번 계약은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뉴스 가치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집단 라이선싱 모델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다니엘 코피(Danielle Coffey) NMA CEO는 "회원사들이 그들의 가치 있는 노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브리아와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후, "수많은 AI 기업과 언론사가 개별적인 협상을 위해 소모적인 회의를 반복하는 대신, NMA가 마련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양측 모두 신속하고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젊은 층이 요구하는 뉴스는? '유익'은 기본, '유머와 긍정'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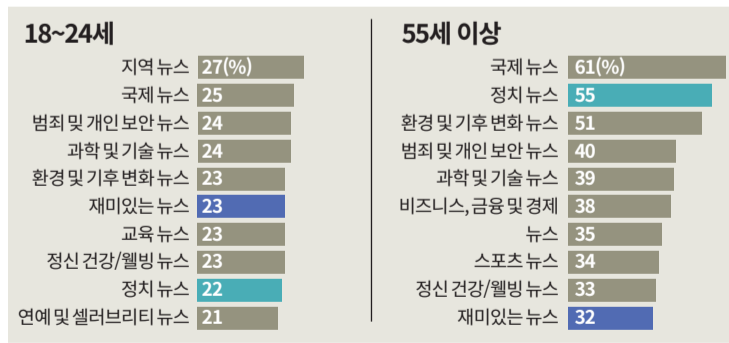
니먼랩(NiemanLab)은 지난 3월 24일, 18~24세 젊은 층과 55세 이상 성인의 상이한 뉴스 소비 패턴을 분석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Reuters Institute)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뉴스 보고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2013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된 9개 국가(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브라질)의 데이터만 분석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 보고서, 세대 간 뉴스 인식 차이 뚜렷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와 AI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지역·국제 뉴스를 중시했으나, '풍자와 유머를 곁들인 재미있는 뉴스'에 대해 젊은 층은 가치 순위 6위로 높게 평가한 반면, 55세 이상 성인은 10위로 낮게 평가하며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상반된 뉴스 소비 방식 보인 청년층과 장년층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뉴스 소비 습관 분석 결과, 젊은 층과 55세 이상 사이의 뉴스 가치관 및 이용 경로에서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55세 이상 성인이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 머물러 있는 반면, 젊은 층은

젊은 층은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콘텐츠도 원했다. 이들은 언론이 정보 제공이라는 전통적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독자에게 긍정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거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여겼다. '긍정적인 뉴스' 강화하는 언론사들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적인 뉴스 피로도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경험



18~24세<왼쪽>와 55세 이상<오른쪽> 독자가 흥미를 느끼는 뉴스 주제

을 원하는 젊은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글로벌 언론사들은 새로운 콘텐츠 전략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BBC(영국), 데일리 매버릭(남아공), 엑셀시오르(멕시코)는 웹사이트 내 '긍정 뉴스' 전용 섹션을 마련했으며, 가디언(영국)과 텔피노(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는 희

망적인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강화했다. 또 글로브 앤 메일(캐나다)은 독자의 웰빙을 고려해 '건강한 삶'과 '행복' 등 심층적인 라이프스타일 취재 분야를 신설했다. 포털→소셜미디어로 뉴스 소비 방식 변화

보고서는 젊은 사람들의 뉴스 소비 습관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며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강조했다. 2015년도에는 젊은 층이 주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뉴스 소비자'에 머물렀다면, 2025년도에는 젊은 세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뉴스 소비의 주된 거점으로 삼는 '소셜 중심 뉴스 이용자'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또한 젊은 층에서 오디오 및 비주얼 포맷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은, 단순 정보 전달보다는 인물 중심의 콘텐츠가 제공하는 '친밀감'과 '진정성'을 갈망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젊은 세대는 AI와 같은 신기술을 실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앞서 있으며, 저널리즘 영역에서 기자들이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성세대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부당 시시비비 정신 지켜 신뢰 강화”

동아일보 창간 106주년 기념식

동아일보(발행인 임채정)는 지난 1일 본사에서 창간 10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재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디어 환경은 플랫폼의 경계가 사라지고 매 순간 무한히 변주되는 콘텐츠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의

경은 플랫폼의 경계가 사라지고 매 순간 무한히 변주되는 콘텐츠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의

심도 남기지 않는 철저함을 갖춰야 한다”며 “‘불편부당 시시비비’ 정신을 지켜나갈 때, 신뢰는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이웃에 도움 되는 매체로 거듭날 것”

뉴스1 창간 15주년 기념식

뉴스1(발행인 이영섭)은 지난 9일 을지로 인근에서 창간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영섭 발행인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5년간 고속성장을 거듭해 온 뉴스1은 향후 15년, 한국 뉴스의 기준을 세운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매체로 거듭나

고속성장을 거듭해 온 뉴스1은 향후 15년, 한국 뉴스의 기준을 세운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매체로 거듭나

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앞에 겸손한 보도 태도를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면에서 계속

아울러 “신문의 힘은 종이 그 자체가 아니라, 공공적 기록, 편집 책임, 검증, 설명, 해석,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조직하는 능력에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매체 형식은 달라졌지만 이 핵심 기능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신문 저널리즘의 청사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신문사가 단순한 콘텐츠 생산자를 넘어 ‘기술 기반의 미디어 기업’으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거 신문은 윤전기와 활자 기술을 보유한 당대 최고의 기술기업이었다”며 “디지털 시대에 신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뉴스 생산과 유통 전반에 결합해

기술적 주도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연구책임자는 언론계의 과제로 사회 통합 기능과 언론윤리 강화, 게이트키퍼, 편집과 경영의 협력 등을 꼽았다. 특히 뉴스 저작권과 공정이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언론사와 AI기업 간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부 차원의 언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모든 뉴스 미디어 및 플랫폼이 통합·융합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언론매체 중심의 법률을 뉴스 콘텐츠 중심의 ‘뉴스콘텐츠법(가칭)’으로 전환하고,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례발표

사례발표 세션에서는 ‘혁신기업

으로의 전환: 신문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신문사의 부문별 혁신 사례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김정근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실장은 독자의 뉴스 이용 행태 변화를 반영한 플랫폼 전략과 성과를 공유했다. 유영훈 매경AX AI데이터부 부장은 생성형 AI 기술을 뉴스룸 전반에 도입해 보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새로운 뉴스 경험을 제공한 AI 서비스 전략을, 김주성 한국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부 부장은 신문사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독자 연결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오석기 강원일보 편집국 부국장 겸 강원일보 논설위원은 각각 지역대학과의 AI협업 프로젝트와 지역 특화 디지털 콘텐츠로 지역 저널리즘의 가치를 입증한 사례를 소개했다.

회원사 동정

강원도민일보, ‘제19회 강원무형유산대상’ 후보자 공모

강원도민일보(발행인 김중석)는 오는 30일까지 ‘제19회 강원무형유산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강원무형유산 전승과 발전에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이며 시상은 대상, 우수상, 신진상, 특별상 등 4개 부문이다. 문의는 강원도민일보 전략실(033-260-9353).

서울경제, ‘제23회 대한민국창업문화대상’

서울경제(발행인 손동영)는 5월 1일까지 ‘대한민국창업문화대상’ 후보를 모집한다. 이 상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응모 부문은 △창업 △인큐베이팅 △e커머스·플랫폼 △프랜차이즈이다. 접수는 이메일(ykj@sedaily.com).

매일신문, ‘2026 아이사랑 사진공모전’

매일신문(발행인 이동관)은 ‘2026 아이사랑 사진공모전’을 공모한다. 출품은 개인 또는 팀(4인 이하)으로 최대 4점까지 가능하며 출품료는 없다. 시상은 △대상(1점) △최우수상(2점) △우수상(3점) △장려상(10점) △입선(30점)이며 수상작은 대백프라자갤러리 A관과 매일신문 홈페이지 포토갤러리에 전시한다. 접수는 5월 1일까지 매일신문 앱 또는 홈페이지.

한국경제, 제18회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한국경제(발행인 조일훈)는 오는 2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18회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GFC 2026)’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달러·위안화·코인: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을 주제로, 카르멘 라인하트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맡고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등이 대담자로 참여한다. 행사는 사전 등록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문의는 02-6000-2511.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코넥스 대상’ 공모

머니투데이(발행인 강호병)는 오는 24일까지 ‘제13회 대한민국 코넥스대상’을 공모한다. ‘코넥스대상’은 2014년 머니투데이와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우수기업 등을 발굴·시상하는 행사다. 시상식은 5월 1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이메일(stock@mt.co.kr).

신문협회보

발행인	박장희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